

2024. 3. 28.(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3월 27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서울도서관장

오지은

02-2133-0200

도서관정책과장

김지혜

02-2133-0220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9쪽

관련 누리집
(메뉴)

<https://lib.seoul.go.kr>(서울도서관)

시민선호 1위 ‘서울야외도서관’이 돌아왔다..서울광화문광장에 이어 청계천까지 확대

- 작년 170만 명 방문, 서울 최고 매력명소 ‘서울야외도서관’ 다음달 18일(목) 개장
- 서울광장 주4회(목~일), 광화문광장 주3회(금~일), 청계천 주2회(금~토), 11월까지 운영
- 서울광장 가족 빈백 설치, 광화문은 캠핑 콘셉트 등 공간별 특화된 분위기 조성
- 한여름도 휴장 없이 야간도서관(16시~21시)으로 전환, 밤독서 특별한 경험 제공

지난해 170만여 명의 시민이 방문하고 서울시민이 뽑은 정책 1위에 선정된 ‘서울야외도서관’이 다시 시민들을 찾아온다.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에 힘입어 올해는 서울광장·광화문광장은 물론 청계천까지 운영 장소를 확대했다. 도심 곳곳에 ‘책 읽는 서울’이 완성되는 것.

서울시는 다음 달 18일(목)을 시작으로 11월 10일(일)까지 매주 목~일 중 ‘서울야외도서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야외도서관은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천 등 총 3곳에서 운영된다.

○ 서울야외도서관은 지난해 ‘서울시 10대 뉴스’ 1위 선정 등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고 지난해는 ‘건물 없는 도서관(Buildingless Library)’ 사례로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이 주관하는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에서 ‘친환경 도서관상’(Green Library Award 2023)을 수상했다.

- ‘책읽는 서울광장’은 주 4회(목~일), ‘광화문 책마당’은 주 3회(금~일) 운영하며 작년 시범운영 시 인기가 높았던 ‘청계천 책읽는 맑은넷가’는 4~6월, 9~10월 기간 내 주 2회(금~토) 운영한다.
- 특히 올해는 한여름(6월 초~9월)에도 휴장을 하지 않고 ‘야간 도서관’으로 전환해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운영, 선선한 밤바람과 함께 독서를 즐기는 특별한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서울야외도서관’을 책 문화공간을 넘어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의 다양한 매력과 정책을 소개하는 ‘매력적인 문화 플랫폼’으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 세 곳의 야외도서관을 공간별로 주제를 달리해 특화 운영한다. 서울광장은 도시의 거실로 가족 빈백 등을 설치해 함께 책 읽는 분위기를 자아내고, 광화문광장은 산자락 아래 캠핑 등 휴양지 느낌을 살렸다. 청계천은 여유와 몰입의 공간으로 꾸며진다.
 - (책읽는 서울광장) 넓은 하늘 아래 온 가족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도시의 거실’로 운영된다. 가족, 연인, 친구가 함께 앉아 독서를 즐길 수 있는 ‘가족 빈백’이 새롭게 마련되고, 엄마 아빠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창의 놀이터’가 광장 중앙에 확대 조성된다.
 - (광화문 책마당) 북악산 자락을 배경으로 누리는 ‘도심 속 휴양지’로 꾸며진다. ‘북베드’와 ‘북캠핑’ 공간을 조성하고 육조마당부터 광화문 라운지까지

거점별 콘셉트에 맞는 해치 조형물을 설치해 여행을 즐기듯 기분 좋은 추억을 선사한다.

- **(책읽는 맑은넷가)** 청계천의 물소리와 함께 일상 속 시름을 흘려보낼 수 있는 ‘몰입의 공간’으로 운영된다. 특히 ‘청계천 책읽는 맑은넷가’는 시 디자인정책과 ‘펀디자인’ 시설물로 새롭게 조성된다. 시는 작년 국제 디자인 어워드에서 펀디자인 벤치로 2관왕을 달성하고 새로운 펀디자인 벤치 디자인 8종과 조명 1종을 개발했다. ‘책읽는 맑은넷가’는 이 중 BKID의 송봉규 디자이너 ‘FORM & FOAM’을 청계천 지형에 맞춰 개발한 의자로 올해의 서울색인 스카이크랄을 적용하여 제작되었다. 또한 구름빛 조명과 LG화학이 후원한 하지훈작가의 서울색 소반으로 채워진다.

- **이 외에도 그간 장소별로 사용되던 ‘서울야외도서관’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통합 디자인하고 신규 슬로건 ‘와! 좋다! 서울야외도서관’도 개발했다.**
 - 신규 B.I.에는 서울야외도서관의 상징물인 ‘책’과 ‘책읽는 서울광장’의 하늘, ‘광화문 책마당’의 산, ‘책읽는 맑은넷가’의 물 등 각각의 장소에서 마주할 수 있는 자연을 반영했다.
 - 슬로건 ‘와! 좋다! 서울야외도서관’은 시민들에게 경쾌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문장으로 만들었다. ‘와! 좋다!’는 그간 야외도서관을 방문한 시민들이 빈백에 앉는 순간 가장 많이 했던 표현으로 서울야외도서관이 문화를 담은 매력공간이라는 의미를 중의적으로 표현한 것.

-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서울야외도서관이 올해도 돌아온다는 소식에 SNS에서 ‘드디어!’라는 댓글을 봤다”며 “긴 겨울 많이 기다려 주신 만큼, 올해는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니 서울야외도서관에서 일상 속 휴식과 몰입의 순간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 붙임 1. 2024년 서울야외도서관 포스터
2. 서울야외도서관 로고 및 슬로건
3. 2024 서울야외도서관 조감도

서울
야외도서관
Seoul Outdoor Library

독서·마경
특별시책

SEOUL
MY SOUL

와!

- 책읽는 서울광장 | 목·금·토·일
- 광화문 책마당 | 금·토·일
- 책읽는 맑은넷가 | 금·토

좋다! 서울~

야외도서관

2024. 4. 18.(목)
- 11. 10.(일)



서울야외도서관 홈페이지



서울
도서관
Seoul
Metropolitan
Library

서울특별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와! 좋다 서울야외도서관



와! 하늘멍, 책멍 책읽는 서울광장



와! 산멍, 책멍 광화문 책마당



와! 물멍, 책멍 책읽는 맑은넷가



- 슬로건: ‘와!’는 방문하는 시민들의 감탄과 동시에 방문을 촉구하는 ‘오세요’를 중의적으로 표현
- 로고: 거점별 자연 특징인 ‘하늘, 산, 물’과 도서관의 상징인 책을 결합하여 경쾌하고 친근하게 표현
 - ▶ 서울야외도서관: 각 거점의 특징(하늘·산·물)을 조합하여 이미지를 상징적 표현
 - ▶ 책읽는 서울광장: 서울광장의 특징적인 모습(원형)과 하늘멍(태양)을 상징
 - ▶ 광화문 책마당: 광화문광장에서 보이는 북악산과 산멍을 상징
 - ▶ 책읽는 맑은넷가: 청계광장을 흐르는 맑은물과 물멍을 상징

○ 책읽는 서울광장 조감도



○ 광화문 책마당 조감도



○ 책읽는 맑은넷가 조감도

